

백인(白刃)의 시학

— 권구현(權九玄)론 —

고 현 철*

목 차

- | | |
|---------------|--------------|
| 1. 들머리 | 4. 아나키즘과 시문학 |
| 2. 시문학의 양상 | 5. 마무리 |
| 3. 백인(白刃)의 시학 | |

1. 들머리

본고는 우리 문학사에서 거의 잊혀진 권구현(1898-1937)¹⁾의 시조 및 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시정신의 일단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권구현은 1920-30년대 당시 세력화·조직화에서 이탈되어 잊혀져 갔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연구된 바²⁾가 거의 없으므로 그의 연구는 이제부터가

* 釜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課程

- 1) 박명용, '시대의 고뇌를 안고 요절한 귀재 아나키스트 권구현', 시문학 242호(시문학사, 1991. 9), pp. 64-69. 여기에서 호적조사에 의해, 지금까지 權九玄으로 알려져 왔던 그의 본명이 사실은 權龜鉉이며 九玄은 필명이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그의 출생년도도 1900년이나 1902년이 아니라 1898년임이 밝혀졌다.
- 2) 그의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발표 당시에 조운의 '병인년과 시조', 조선문단 19호(1927. 2)에서 몇 줄 언급이 있었고, 박영회의 '현대한국문학사(9)', 사상계 68호(1959. 3)에서 몇 줄 언급이 있었다. 그후 임선묵, 근대시조집의 양상(단대출판부, 1983)에서 몇 쪽 개괄적이고 피상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지식산업사, 1988)에서 다양한 시조 창작 양상의 한 예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시 작품에 대해서는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하(학연사, 1986)에서 몇 쪽 시조 작품과 함께 개괄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조두섭, '권구현 시 연구',

시작인 셈이다. 따라서 본고는 권구현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의 일환인 것이다.

권구현은 처음 카프의 맹원이었다가 이념과 문학 창작 태도를 둘러싸고 카프에서 이탈하는데,³⁾ 당시 카프가 방향 전환할 때마다 양심적인 민족문학인들에 폐쇄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있는 글⁴⁾을 볼 때, 권구현을 이 글에서 말하는 “양심적인 민족문학인”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본고의 뒤에 결론적으로 밝혀지겠지만, 권구현은 일제식민지하에서 민족적 특수성과 전통을 간파한 카프와 피압박민족으로서의 계급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문학파를 비판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의 일원화를 추구한 문학인의 한 전형인 것이다.

본고는 그의 시문학을 관류하는 시정신의 일단을 살펴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성격이 파악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그의 시문학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그가 말한 ‘백인(白刃)’의 시학이란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적 기반인 아나키즘을 시문학의 특징과 관련,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시문학의 양상

먼저 권구현 시조 작품의 성격을 필자의 앞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구현의 시조는 최남선에 이어 6행3연시의 형식을 쓰고 있는 데다가 형태시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형식적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이

대구어문론총 7집(1989. 11)에서 그의 시문학 전반에 대해 좀더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그리고 필자가 ‘권구현 시조 연구’, 국어국문학 27집(부산대국문과, 1990. 9)에서 그의 시조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를 검토한 적이 있다.

권구현의 전기적 사실에 대해서는 박명용의 앞의 글을 참고하기 바람.

3) 아나키스트 김화산이 발표한 ‘계급예술론의 신전개’, 조선문단 20호(1927. 3)를 계기로 카프에서 아나키스트 권구현·김화산 등이 이탈한 것을 말한다. 이후 카프는 그 방향을 완전히 목적의식적 활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4)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89), p. 249.

오직 한 가지만으로 나타나 개별 작품에 따른 다양한 형식 표출에는 못 미치고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울격은 일제 음수술의 영향에 의한, 그 당시 널리 유행하던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주제적인 ‘협회의 시조’ 전통⁵⁾을 잘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인용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의의 시조’ 전통⁶⁾을 보다 적극 수용한 주제적이고 개방적인 울격의 식을 드러내고 있다.

넘업는게 쉽다마오
 밥업는게 더쉽데다
 限百年 묘실님이야
 暫時그려 엇더리만
 죽지못해 하는종질
 압박만이 報酬라오

둘째, 권구현의 시조는 일제 식민지하의 삶을 노예의 삶으로 규정짓고, (노예에서 기계로/이몸을 다팔아도) 진정한 삶의 자유(자유에서 자유로) 조국의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저어서 또저으면/설마한들 못건너리) 그리고 헌신적으로(검은밤에 재가될몸/이한아 쏠이외다) 투쟁하려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저항의 정신이 평이한 일상어·시대적 감각을 살린 시어의 사용과 함께 절제된 감정과 내면에 다짐하는 듯한 어조로써 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권구현은 민족의 전통적 문학 양식인 시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론이 빈곤한 우파의 국민문학론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전개된 복고주의적 성격을 뛰어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좌파의 계급문학론에서 오류를 범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족적 모순의 해결이지만 이를 간과했던 점⁷⁾을 동시에 뛰어넘고 있다.

이제 여기서 권구현의 시 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민요시 혹은 민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 주목된다. 민요시란 민요를 바탕으로 씌어진 개

5)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단시조(평시조) 제3행(종장)의 특성이 있는 3행4음보격의 시조를 말하는데, 연구대상 50수(‘단곡오십편’) 중 17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6) 단시조 제3행의 특성이 없는 3행4음보격의 시조를 말하는데, 50수 중 32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7) 최원식, 민족문학의 논리(창작과비평사, 1982), pp. 347-351.

인창작시로, 민요성과 개인창작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⁸⁾ 그런데, 권구현이 한 때 가입한 카프에서 부정한 바 있는 민족의 전통적 문학 양식인 민요⁹⁾를 수용하여 작품을 썼다는 사실은 시조 창작과 더불어 그의 시정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넛날의 이곳에는 열두집이 모혀살제
노는이도 업섯고 굶는이도 업섯나니
서로서로 일하며 서로서로 먹었나니
우습과 사랑으로 원마을을 채웠나니
네내것 없는지라 도적놈도 업섯나니
넛날의 이곳에는 울과담도 업섯나니
이것은 넛날의 농촌이외다

이날의 이곳에는 단세집이 모혀살되
암집엔 쌀밥질제 뒷집에는 죽못썩고
늙은이 흙을팔제 젊은사람 노리가고
니웃집 초상나도 내몰라라 춤을추고
네내것 분명하니 장리쳐서 도조밧고
이것은 이날의 농촌이외다

넛날의 농촌에는 기차를 불났다조
그러나 오고감에 자유는 잇섯다조
이날의 농촌에는 황금이 드나드조
그러나 날과달로 등산군 들어가조
넛날의 이농촌은 야만의 농촌엿조
이날의 이농촌은 문명한 농촌이조
이것이 농촌의 넛과 이제외다

— ‘농촌서품(農村序品)’ 전문¹⁰⁾

권구현 시 작품으로는 꽤 긴 시인 이 작품은 4음보의 민요적 전통을 잘 잇고 있는데, 제1연 “넛날의 농촌”과 “이날의 농촌”이 대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넛날의 농촌” 모습이 병치구조를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목록화되고 있는데 반해, 역시 병치구조를 활용하여 “지금의 농촌” 모습이 부정적으로 목록화되고 있다. “넛날의 농촌”이 “사랑”과 평등 그리고 화합의 건강한 공동

8) 박경수, 한국근대민요시연구(부산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 18-30에 ‘민요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9) 카프의 민요 부정론의 대표적인 것으로, 김기진, ‘문예시평-문단상 조선주의’, 조선지광 64호 (1927. 2)가 있다.

10) 조선일보(1930. 2. 2). 시작품 인용은 원문 그대로 하고, 음보단위로 띄어쓰기 한다.

체라면, “이날의 농촌”은 갈등과 이기심의 타락한 사회이다. 이러한 것이 제3연에서는 ‘옛날 : 이제 : : 자유 : 속박’, ‘옛날 : 이제 : : 야만 : 문명’의 4항 대응(four term homology)¹¹⁾으로 그 대조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로왔던 과거의 시간은 긍정되고 속박있는 현재의 시간은 부정된다. 현재는 일제 식민지 치하 궁핍한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물질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과거는 긍정되고, 물질문명이 발달된 현재는 오히려 부정된다. 과거는 물질문명이 발달되지 못해도 “서로서로” 평등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회, 그리고 서로간 경계가 없는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가 문명이 발달되자 평등이 깨져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갈등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사회로 전락된 것이다. 따라서 문명의 현재 농촌 사회는 부정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특히, “장리”, “도조”의 시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에 의한 현대 물질문명 발달을 비판함과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배격적 태도도 보이는 것이다. 사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는 자본주의 및 팽창주의적 침략 근성의 발로인 것이다.

이 작품이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를 저주한 배일(排日)적인 것으로 적발당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의 비밀간행물 《언문신문의 시가》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사실¹²⁾을 볼 때도, 이 시는 계급적 성격 뿐만 아니라 일제에 대한 저항을 치열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마는 밧을갈재 농부님네 씨뿌리고
리재민은 박아지요 주린창자 도적내니
비에이봄 ○○의봄일다
봄마지가자 봄마지가다
이상에 오는봄 봄마지가자 새봄마지

- ‘봄마지’ 제3연¹³⁾

11) J. Culler, *Structuralist Poetics* (Cornell Univ. Press, 1975), pp. 172-174.

T. Hawkes, *Structuralism & Semiotics* (California Univ. Press, 1977), pp. 87-95. 참고.

A. J. Greimas의 의미이론의 기초로서 그에 의해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라고 명명된 것이다.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개념인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을 기본의미소(eme)들, 즉 의미의 단위들 사이에 적용한 것으로, 4개의 항(ferm)이 두 개의 대립쌍을 이루어 A와 B의 대립은 -A(C)와 -B(D)의 대립과 같다. (A : B : : -A(C) : -B(D))는 구조로 그 의미작용이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12) ‘30년대 무명저항시 89선집’, 문학사상 88호(문학사상사, 1980. 3.)

13) 동아일보(1930. 1. 19)

위에 인용한 시도 4음보 율격에 병치구조를 바탕으로 한 민요시이다. 단지 제3·4행이 각각 2음보로 행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제2행 “리재민은 박아지요 주린창자 도적내니”라는 구절에 궁핍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는데, 시적 화자는 여기에 주저앉지 말고 “봄마지가자 새봄마지”라 하여 진정한 봄인 “새봄”을 함께 맞이해 보자고 역설한다. 따라서 원래 게재될 때부터 삭제되어 있는 제3행의 “○○의 봄”에서 “○○”는 현실의 궁핍한 상황과 대조되는 의미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 아닌가 한다.

권구현은 정노풍과 특히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은데, 정노풍의 ‘오렴 오렴 - 구현에게’ (동아일보, 1930. 1. 21.)라는 시작품에 대해 권구현이 ‘연춘곡 (戀春曲) - 노풍에게’ (동아일보, 1930. 1. 25.)라는 시작품으로 화답한 바 있다. 여기서 정노풍에게 화답한 시 ‘연춘곡’도 민요에 있어서의 4음보 2행이 한 연이 되어 병치구조로 이루어진 민요시이다. 그리고 ‘파산(1)·(2)’ (동아일보, 1929. 12. 17-18)와 ‘님에게’ (동아일보, 1930. 1. 8)도 4음보의 병치구조를 바탕으로 한 민요시이고, ‘돈놀이’ (중외일보, 1929. 12. 10)는 4음보 2행이 행구분된 2음보 4행시가 3번 반복되는 형식의 민요시로 파악된다.

권구현의 시에는 또한 다음 인용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표시 검열에 걸려 삭제되어 있는 작품들이 여러 편 있다.

넛말에
 밥지여주고 못어더먹는것을
 부짓쟁이 신세라더니
 ×××
 ××× ××××××

- ‘부짓쟁이?’ 제1연¹⁴⁾

이 시는 이와같이 제1연에서의 두행이 삭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8행인 제2연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문맥으로 볼 때 “밥지여주고 못어더먹는” “부짓쟁이 신세”에 근본 비교되고 있는 무엇이 삭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거래의 처지를 간명한 비교의 형식으로 나타내서 일본 제국주의가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권구현의 시는 여러 편의 작품이 조선총

14) 흑방의 선물(영창서관, 1927. 3), pp. 83-34.

독부의 규제에 걸려 압수, 폐기 처분되었다는 기록¹⁵⁾이 있다.

권구현의 시는 민요적 특색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작품에서도 궁핍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계급의식과 아울러 일제에 대한 굳은 저항의지가 평이한 시어와 간명한 표현 형식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의 항에서 정리한 ‘시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3. 백인(白刃)의 시학

권구현은 김기진과 박영회로부터 촉발된¹⁶⁾ 프로문예비평이 이른바 ‘내용과 형식 논쟁’에 제3자로서 염상섭·양주동 등과 함께 절충적 혹은 중재적 입장을 보인 문인이다. 그때 발표한 평론이 ‘계급문학과 그 비판적 요소’인데, 여기서 그의 시정신의 단초를 추출할 수 있다.

박군의 논법에 대하여 어떠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김군이 너무도 작품상 표현과 묘사에만 과중시하였음에 비하여 박군은 너무도 이것을 도외시하는 혐(嫌)이 없지 않다. ……(중략)…… 미구에 깃쳐들어올 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파하기 위하여 응급히 제작하는 이 장점에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정제된 전형과 광택있는 맥시를 구할 것인가. 피갑(皮匣)을 구할 것인가. 아니다. 아무것도 구하여 요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오로지 바라는 것은 먼저 자호(自好)한 강철을 취택한 다음에 낙락장송이라도 일도(一刀)에 참단할 날카로운 백인(白刃) 뿐이다. 우리가 취택하는 제재는 강철이다. 표현은 백인(白刃)이다.¹⁷⁾

권구현은 이 평론에서 작품의 예술성을 전혀 무시하는 박영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작품의 예술성인 표현과 묘사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김기진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하여 권구현은 문학작품을 “장검”에 비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날카로운 백인”의 “표현”을 가진 작품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그의 시문학 양상과 관련시켜 보면, “강철”은 계급

15) 조선총독부 경무국, 언문신문차압기사잡록(1932), pp. 557-558. 김용직, 앞의 책, p. 429에서 재인용.

16) 김기진, ‘문예월평-산문적 월평’, 조선지광 62호(1926. 12)

박영회,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 조선지광 63호(1927. 1)

17) 동광 10호(1927. 2)

의식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로, “백인”은 간명한 표현 형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권구현이 평이한 시어와 간명한 “표현”의 “백인(白刃)”을 내세운 배경에는 자신이 쓴 작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민중에게 침투시킬까¹⁸⁾ 하는, 이른바 문학작품의 대중(민중)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 아나키스트의 입장에서 카프를 비판한 평론 ‘맑스주의문학론 음미—아나키즘의 예술관적 입장에서’의 다음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가튼 목적의식적 문학은 물론 정치적전위(前衛)만이 의식 파악한 문학이 아니라 민중적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예술 그 자체의 자율성에 의한 발육은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민중은 어찌한 문학예술을 요구하는가? 민중과 뜻가지 성장 발전하여 나갈 예술은 어찌한 것일까? 이것이 여기에 논의되지 않으면 아니된다.¹⁹⁾

이후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위 인용을 보면 권구현은 카프의 맑스주의 문학, 즉 목적의식적 문학은 “민중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자신은 “민중이” “요구하는” “문학예술”, “민중과 뜻가지 성장 발전하여 나갈 예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권구현이 사상적으로 추종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러시아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도 사회에 이익을 주는 예술과 함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예술”을 추구하였다는 사실²⁰⁾을 볼 때, 이는 더욱 뒷받침되는 것이다.

그러하여 권구현이 민중에게 침투하기 쉽다고 선택한 갈래가 시조와 민요시를 비롯한 간명한 시 형식이다.

그런데, 권구현과 친분이 두터웠고 민요시도 쓴 바 있는²¹⁾ 정노풍의 평론

18) 김용직, 앞의 책, p.441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19) 조선문학 4호(1933. 11)

20) 유서, 크로포트킨의 문예관, 동광 5호(1926. 9)

“참으로 위대한 예술은 고심(高深)한 사상이 부차 외에 각개 농부의 초가 안에까지 투진(透進)하여 각 사람의 더 노론 생활과 사상을 격락(激落)한다.—이러한 예술을 참으로 수요(需要)하는 바이다”.

위 인용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예술’의 항목에 나오는데, 크로포트킨도 민중이 수용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1) 박경수, 앞의 학위논문, pp.188—190에서 정노풍의 민요시를 검토하고 있다.

‘조선문학건설의 이론적 기초’에 이와 관련되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그리하여 옛채서 우리에게는 맹목적 민족의식이나 단순한 계급의식이 아니라 계급적 민족의식 뿐이 요구되는나 하는 것을 명료히 하였고 ……(중략)…… 마치 우금까지는 형식이란 것이 업서서 문예작품이 실패된 것과 갓치 오해하야 「신형식의 안출」이니 규정이니 결정이니 운운하고 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명료히 할 수 잇섯코 또 이러한 문제는 의식을 파악한 우리 문인의 교양과 창작역량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준히 문예제작을 생산해 나가는 가운데서만 생성될 문제인 까닭도 구명하였다. 팔하서 우리에게 잇서서는 우리의 창작역량을 기우려 작품생산에 노력할 것. 그 작품을 민족대중에게 침윤될 것이 되도록 제작과정이나 침윤과정에 잇서서 최선을 다할 것. 이러한 조목이 우리의 원칙적 책무로서 요구된다는 것도 명료히 하얏다고 밋는다.²²⁾

여기서 정노풍은 “맹목적 민족의식”과 함께 “단순한 계급의식”의 문학을 비판하면서 “계급적 민족의식”의 문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문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문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형식의 안출”이니 규정이니 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 하면서 “민족대중에게 침윤될 것이 되도록” 문학작품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 인용하는 대목은 이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작가에게 잇서서는 파악한 의식을 것처서 작품생산의 과정에 드러가서 전창작역량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조흔 작품, 민족대중이 요구하는 바 제작을 생산할 책부뿐이 요구된다. 이러한 책부의 관철에 잇서서 변증적 표상주의나 변증적 사실주의 또는 「내오조라이즘」과 여(如)한 규정은 한 참고어리로서 요구될 뿐으로 결정적 의의를 가질 수 업는 것이니 실로 우리가 우리 창작과정에 잇서 무슨 명심할 바 규정이 필요하다면 다만 민족대중에 대한 침윤의 효과성으로부터 요구되는 표현의 평이 간명 이상을 더 나갈 수 업다. ……(중략)…… 그럼으로 우리에게 잇서서는 오늘날 우리 의식을 전취파악(戰取把握)하자. 그리하야 우리의 제작역량을 기우려 정제미를 갖춘 제작생산에 힘쓰자. 오직 평이 간명의 표현을 잇지 말고 이것뿐이 요구될 수 밋게 업다.²³⁾

정노풍은 “민족대중이 요구하는” 문학작품을 “조흔 작품”이라 하면서, “민족대중에 대한 침윤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오직 평이 간명의 표현”만이 요

22) 조선일보(1929. 10. 23-11. 30)

23) 위의 평론.

구된다고 한다. 그리고 “신형식의 안출”이니 규정이니를 “변증적 표상주의나 변증적 사실주의 또는 「내오조라이즘」과 여(如)한 규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것은 문학작품의 “창작과정”에 하나의 “참고서리”에 불과하다고 못박는다. “창작과정에 잇서” “명심할 바 규정”은 오직 “표현의 평이 간명”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노풍은 서구에서 수용된 “신형식의 안출”이 아니라 “간명 평이한” 전통적인 시가 형식을 바탕으로 문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계급적 민족의식”의 문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노풍도 민요시를 비롯한, 평이한 시어와 간명한 표현 형식의 서정시를 즐겨 쓴 것으로 보인다.²⁴⁾

이와 같이 볼 때, 권구현과 정노풍의 문학적 성격은 상당한 정도 공통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권구현은 시조도 즐겨 썼는데 비해, 정노풍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라 파악된다.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된 글이 있으나²⁵⁾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민요는 현실을 생동적으로 표현한 민중의 갈래이다. 이 민요 혹은 민요시를 당시에 카프에서 부정한 것은 국민문학과 쪽에 이미 민요시 창작의 기선을 빼앗겨 버린 데 있었고, 국민문학과측에서 내놓은 민요시가 현실을 생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진중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민요가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민중문학이란 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민요를 시조와 마찬가지로 봉건주의 시대 부르조아지의 퇴영적 잔존물로 부정한 것이다.²⁶⁾ 그러나 카프측에서도 1920년대말 1930년대 초에 오면 프로시가의 대중화 형식 탐구로 민요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고, 그 이전에 민요시가 창작된 것도 있다.²⁷⁾

24) 정노풍의 시 전반에 대한 연구는, 김재홍, ‘계급적 민족의식의 시, 정노풍’, 한국문학 185호(한국문학사, 1989. 3)이 있다. 여기서 정노풍의 시를 “민중적 내용의 민족적 형식화”라 한 부분이 주목된다.

25) 박인기, 한국현대시의 모더니즘 연구(단대출판부, 1988), p. 119에 정노풍의 몇 평론이 “아나키즘 문예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으나,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6) 박경수, 앞의 학위논문, pp. 173-174 참조.

27) 위의 학위논문, pp. 146-152, pp. 174-184에서 카프에 참여한 바 있는 김석송·김동환·양우정이 쓴 민요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시조(단시조)가 조선조 양반문학의 한 형식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형식은 이미 개화기 시대에 그 성격이 많이 달라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개화기에 있어 시조(단시조)는 조선조 양반귀족적 성격을 아주 벗어나 민중성을 획득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과 친일매국도배에 대한 규탄을 노래하고 있다. 권구현의 시조는 이러한 성격의 개화기 시조의 전통을 개성적으로 심화하여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²⁸⁾

따라서, 당시에 시조나 민요 혹은 민요시 형식 선택 자체를 문제 삼은 카프의 입장(민요의 경우는 카프의 초기 입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프로문학의 대중화에 대한 일련의 이론을 전개했던 김기진은 후에 시가문학에 대한 대중화의 방법으로 난편서사시 뿐만 아니라 민요를 들고 있다.²⁹⁾ 박완식도 프로 시가 대중화의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민요를 들고 있다.³⁰⁾

아무튼, 당시 신문예가 상층지식인의 소유일 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한 민중들과는 유리된 것일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³¹⁾을 볼 때, 민족의 전통적 양식을 이은 권구현의 시조·민요시 등의 간명한 시형식은 문학작품의 대중화 양식에 신문학 양식 보다 아주 적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³²⁾

4. 아나키즘과 시문학

권구현은 사상적으로 러시아 아나키스트인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고등경찰보 제1호>에 있는 ‘프로레타리아 문예운동의 초기’를 보면 카프 초기의 내부에는 권구현 일파의 아나키스트계와 김동환 일파의 민족계 그리고 박영희 일파의 불세비키계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28)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앞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29) ‘농민문제에 대한 초안’, 조선농민 3호(1929. 3)
‘예술의 대중화에 대하여’, 조선일보(1930. 1. 1-14)

30) 프롤레타리아 시가의 대중화 문제 소고, 동아일보(1930. 1. 7-10)

31) 이영미, 1920년대 대중화논쟁 연구(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 59.

32) 김용직, 앞의 책, p. 470에서도 이 점이 언급된 바 있다.

아나키즘은 마르크시즘과 함께 3·1운동 실패 이후, 식민지의 민족 현실에 나타나는 민족적·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입되기 시작한 사회사상이다.³³⁾

아나키는 본래 ‘무지배’를 뜻한다. 사람이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살고자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한 개인에 의한 개인의 지배거나 한 집단에 의한 다른 집단의 지배거나 또는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지배거나 간에,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하여 자유를 현실화하는 것이 아나키즘의 과제이다.³⁴⁾

아나키즘은 마르크시즘과 마찬가지로 부르조아의 프롤레타리아 지배를 거부하지만, 또한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지배도 거부하는 것이다.

권구현의 시문학이 단순한 계급의식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그 밑바탕에 우리 민족에 대한 다른 민족 즉 일본의 지배를 배격하려는 이 아나키즘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시문학에서 물질적인 빈궁의식이 드러나 프롤레타리아를 옹호하는 것은 아나키스트는 대지의 부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속한다고 믿어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 부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⁵⁾

다음 인용하는 대목도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크로포트킨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생산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 위주로 계획될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제공황은 과잉생산의 소산이 아니라 민중의 강요된 빈곤으로 인한 과소소비와 비생산적 작업으로의 노동력의 낭비의 소산이라고 본다.³⁶⁾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은 모든 물질적 “생산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를 포함한 “만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천명한다. “자본주의에서” 우려하는 “경제공황”도 “과잉생산의 소산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의” 지속적인 “강요된 빈곤으로 인한 과소소비와” 지속적인

33) 박인기, '1920년대 한국문학의 아나키즘 수용양상', 국어국문학 90호(국어국문학회, 1983), p. 413

34) 죠지·우드코크(하기락 역), 아나키즘—사상편(형설출판사, 1972), pp. 3-4.

35) 허버트·리드(정진업 역), 시와 아나키즘(형설출판사, 1983), p. 12.

36) 크로포트킨(하기락 역), 상호부조론(형설출판사, 1983), p. 6.

“노동력의 낭비의 소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민중의 강요한 빈곤”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는 한편에선 ‘소박한 생활에의 충동’³⁷⁾도 지니고 있는데, 앞의 ‘2. 시문학의 양상’에서 인용한 바 있는 ‘농촌서품’이란 작품에서 자본주의적 물질문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소박한 생활 가운데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려 했던 것은 바로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의 팽창주의적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아나키즘 사상을 가진 권구현이 반제국·반자본주의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시문학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아나키스트는 지배세력인 부르조아를 배격한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시스트와 통하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도 또한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 입장이 다르다.³⁸⁾ 아나키스트는 권력을 잡고 이를 유지할 목적을 가진 모든 당파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기초이념은 자유와 자발성이 있는데,³⁹⁾ 카프에서 아나키스트들이 권구현·김화산 등이 이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었다.

당시 결과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이 카프에서 이탈한 계기가 되어버린 김화산의 평론 ‘계급예술론의 신전개—공산파 문예론가에 대한 일소(一小)검토’⁴⁰⁾를 보면, 김화산은 당시 프로문예를 맑스주의로만 여기는 태도를 사대주의에 부하되동하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프로문예로서의 아나키즘 문학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아나키즘 문학론은, 마르크시즘의 이른바 목적의식론(공식주의)에 반기를 들고 문학은 강제와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된 예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화산의 논지에 동조한 권구현은 진작부터 카프의 공식주의에 반발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린 시조와 민요시를 비롯한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는 간명한 시문학을 이룩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신이 생각한 문학작품의 대중(민중)

37) 죠지·우드코크, 앞의 책, pp. 32-34.

38) 위의 책, pp. 4-5.

39) 위의 책, p. 21.

40) 조선문단 20호(1927. 3)

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아나키즘이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선례로 단재 신채호의 경우가 있다.⁴¹⁾ 신채호가 남긴 글 중, ‘조선혁명선언’(1923. 1)이 바로 아나키스트 단체의 의열단 선언이었고,⁴²⁾ 동아일보에 발표한 ‘낭객의 신년만필’이란 평론의 다음 대목은 아나키즘을 수용하고자 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아 크로포트인의 「청년에게 고하노라」란 논문의 세례를 받자. 이 글이 가장 병에 맞는 약방(藥方)이 될가 한다.⁴³⁾

그리고 신채호는 일본제국주의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의 처지를 무시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확립을 추종하는 당시의 일부 비민족적인 경향을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이 민족주의적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전 상해에서 〈민중〉이란 주일(週日)신문에 었던 문사가 이러한 논문을 썼다. 「조선인 중에도 유산자는 세력있는 일본인과 같고, 일본인 중에도 무산자는 가련한 조선인과 한가지니 우리 운동을 난을 것이 안이오 유무산으로 난을 것이라」고 유산계급의 조선인이 일본인과 갖다 합은 우리도 승인하는 바이거나 무산계급의 일본인을 조선인으로 본다 합은 몰상식한 언론인인가 하니 일본인이 아모리 무산자일지라도 그래도 그 뒤에 일본 제국이 잇서 위험이 잇슬가 보호하며 재해에 걸리면 보조하며 자녀가 나면 교육으로 지식을 주도록 하여 조선의 유산자보다 호강한 생활을 누릴 쉰더러 하물며 조선에 이식한 자는 조선인의 생활을 위협(威嚇)하는 식민의 선봉이니 무산자의 일인을 환영함이 곳 식민의 선봉을 환영함이 아니냐. ……(중략)…… 일본무산자를 조선인으로 본다 합이 강족에게 납도(納諂)하는 못난 비열(卑劣)이 안이면 종로 거지가 도승지를 불상타는 지나친 인후(仁厚)가 될 쉰이다.⁴⁴⁾

여기서, 신채호는 “무산자”는 옹호하지만 “유산계급의 일본인”은 “조선의

-
- 41) 장울병, ‘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와 무정부주의’, 단재 신채호와 민족사관(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0)
 하기락, ‘단재의 아나키즘’, 위의 책.
- 42) 의열단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무정부주의운동사 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 운동사(형설출판사, 1983)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님 웨일즈(조우화 역), 아리랑(동녘, 1984), pp. 93-97에서도 이러한 면이 언급되고 있다.
- 43) 동아일보(1925. 1. 2)
- 44) 위의 평론.

유산자보다 호강한 생활을” 누리며 “조선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식민의 선봉”이라 간주하여 배격하는 계급운동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의 일원화를 추구한 권구현은 사상적인 면에서 신채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⁴⁵⁾

일제 강점기에 수용된 아나키즘은 당시 식민지적 상황으로 인하여 민족해방전선과 계급해방전선의 상보적 성격을 이루었다.⁴⁶⁾

권구현의 시문학은 이러한 사상의 문학적 실천인 것이다.

5. 마무리

이상 우리 문학사에서 거의 잊혀진 권구현의 시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관류하고 있는 시정신율 ‘백인(白刃)의 시학’이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시조와 민요시를 비롯한 백인의 간명한 표현 형식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드러낸 권구현의 시문학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민족적 특수성과 전통을 간과한 카프와 피압박민족으로서의 계급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문학파를 작품으로 비판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의 일원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노풍의 문학과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권구현은 사상적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는데, 이를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상보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그의 시문학에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권구현이 사상적으로 신채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여기에 본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거리를

45) 권승춘, ‘내 기억에 살아계시는 아버지’, 시문학 242호(시문학사, 1991. 9), pp. 70-72.

이 글은 권구현의 아드님 권승춘의 추모사인데, 여기에 보이는 “... 일본 동경에서 단재 신채호 등과 더불어 아나키스트라는 장르의 세계를 맴돌다...”라는 구절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46) 조두섭, 앞의 논문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다.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구현은 시문학 외에 소설, 문학평론 그리고 사회평론 및 미술평론도 썼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문학갈래와 참고자료를 아울러 검토하여 권구현의 문학적 초상이 보다 자세하게 그려져야 할 것이다.

둘째, 카프와 국민문학파를 비판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일원화를 추구한, 정노풍을 비롯한 다른 문학인들의 문학과 실제작품을 살펴 이들의 문학적 성격과 의의가 권구현의 경우와 면밀하게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권구현과 신채호와의 사상적 관련성도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언급한 문제거리는 본고에서 검토한 권구현의 시문학을 보다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끝으로, 권구현의 '작품연보'를 필자가 현재까지 조사, 확인한 대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그의 작품목록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것으로, 먼저 임선목의 《근대시조집의 양상(단대출판부, 1983)》을 들 수 있는데, 권구현의 작품제목들이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고 빠진 것도 많이 있다.

권영민의 《한국근대문인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0)》에는 권구현의 작품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역시 빠진 것이 더러 있고 확인 결과 틀린 곳도 있다. ('낙동강의 봄비', '조고마한 슬픔', '너의 갈 길은'의 세작품 발표년이 33년인데 32년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박명용의 '시대의 고뇌를 안고 요절한 귀재 아나키스트 권구현'(시문학 242호, 1991. 9)에도 권구현의 작품목록이 꽤 나와 있으나 역시 빠진 것이 많이 있고 어떤 것은 틀린 부분도 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조4장'의 발표년이 26년인데 25년으로 되어 있다.
- (2) '폭풍아 오너라'의 발표 년월일이 30년 1월 11일인데 29년 1월 12일로 되어 있다.
- (3) '연춘곡'의 발표 년월일이 30년 1월 25일인데 30년 2월 6일로 되어 있다.
- (4) '구천동 숲장사'의 발표일(33년 1월)이 16일인데 6일로 되어 있다.
- (5) 동아일보(29. 12. 15)에 발표된 시작품의 제목이 '벗에게 부치는 편지'

인데 '벗에게'로 되어 있다.

(6) 동아일보(33. 12. 22)에 발표된 시작품의 제목이 '이별의 찬미'인데 '여명의 찬미'로 되어 있다.

(7) 장점과 백인의 비유를 든 문학평론이 '계급문학과 그 비판적 요소'인데, '전기적 프로예술'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도 다음의 '작품연보'는 시급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조사·확인 과정을 거쳐 작품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대로 이를 보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권구현의 아드님 권승춘의 '내 기억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시문학 242호, 1991. 9)에 의하면 '흑맥'이란 소설도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없어 '작품연보'에서는 확인될 때까지 일단 생략하였음을 부기해 둔다.

작품 연보

갈래	제목	발표지(발행처)	년월일	비고
시조	시조4장-눌린이의 노래에서	시대일보	26. 6. 7.	'시조집' 재수록
	시조3장	〃	26. 6. 20.	〃
	시조3장	〃	26. 6. 21.	〃
	시조3장	〃	26. 6. 28.	〃
	시조3장	〃	〃	〃
	시조6장	조선저광 61호	26. 11.	1수 삭제 재재 '시조집' 재수록
	추방	중외일보	26. 12. 20.	시조 4수
	폭풍우의 마음	동광 13호	27. 5.	시조 3수
	시조 5장	조선문단 23호	35. 5.	'조선저광 61호' 수록 시조 재수록
	시	돈놀이	중외일보	26. 12. 10.
벗에게 부치는 편지		동아일보	29. 12. 15.	
파산(破産) 1·2		〃	29.12.17-18	
자중(自重)		〃	29. 12. 27.	
아기		〃	29. 12. 28.	
님에게		〃	30. 1. 8.	
폭풍아 오너라		〃	30. 1. 11.	
생명의 행진		〃	30. 1. 12.	
봄마지		〃	30. 1. 19.	
연춘곡(戀春曲)-노풍에게		〃	30. 1. 25.	
농촌서품(農村序品)		조선일보	30. 2. 2.	
연심(戀心)-요한에게		동아일보	30. 2. 4.	
청대습		〃	30. 2. 6.	
새날		〃	30. 3. 2.	
절로 우는 심금(心琴)		신동아 9호	32. 7.	

갈래	제목	발표지(발행처)	년월일	비고
	희망의 노래	조선일보	33. 1. 3.	
	구천동 숫장사	〃	33. 1. 16.	
	아라사 새악씨	신동아 15호	33. 1.	
	낙동강의 봄비	삼천리	33. 4.	
	쇼코마한 슬픔	〃	〃	
	너의 갈 길은	〃	〃	
	이별의 찬미	동아일보	33. 12. 22.	
	새해를 맞이하는 동무여	〃	34. 1. 7.	
	굳어진 그림자	〃	34. 1. 31.	
시·시조집	흑방(黑房)의 선물	영창서관	27. 3.	시조 50수, 시 47편(표지에 '1923-1926'으로 기재되어 있음)
단편소설	폐물(廢物)	별건곤 4호	27. 2.	
	인육시장점경(人肉市場點景)	조선일보	33.9.28 - 10.10.	
수필	천연동의 풍경	동방평론	32. 7.	
문학평론	무산계급의 예술	시대일보	26. 5. 2-9.	
	무산계급의 심미감	〃	26. 5. 24.	
	포석(抱石)군의 직업노동 문예작품	동아일보	26.12.10-12.	
	품을 읽고			
	문단촌언-신년을 마으며	중외일보	26.12.27-29.	
	1월창작평-실증문학을 기초로	동아일보	27.1.29-2.3.	
	한 구성적 월평			
	계급문학과 그 비판적 요소-김기진군 대 박영희의 논전을 읽고	동광 10호	27. 2.	
	전기적 프로예술	동광 11호	27. 3.	
	이상문제에 관한 이론과 실제-맑스주의자의 일고(一考)를 요함	조선일보	29.12.5-11.	

갈 래	제 목	발표지(발행처)	년 월 일	비 고
	김동인씨의 예술전당을 과학 (破碎)	조선일보	30.1.11-14.	
	이상문제에 대하여-재론으로써 강군에 답함	조선일보	30.3.25-31.	
	문학작품의 방법론적 연구	◇	30. 5. 2-7.	
	신춘문예개관	매일신보	33.1.29-2.14.	
	맑스주의문학론음미-아나키즘 의 예술관적 입장에서	조선문학 4호	33. 11.	
사회평론	여성운동의 일고찰	중외일보	27.8.30-31.	
	맑스 경제론과 크로포트킨의 비판	동아일보	32.2.10-21.	
미술평론	선사시대회화사	동광11-13호	27. 3.-5.	
	속수 인물화강의	동광 14-15호	27. 6.-7.	
	신문삽화만평	별건곤 10호	27. 12.	
	덕수궁 석조전의 일본 미술을 보고	동아일보	33.11.9.-17.	